

통일한국군의 군사체계 모델: 예비역 장성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김상호(육군예비역중장)

배진수(한국군사문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목 차 ▷

- I. 연구목적 및 연구방법
- II. 군사체계의 개념과 구성
- III. 통일한국군 군사체계 의견조사 결과
- IV. 결론 및 제언

I. 연구목적 및 연구방법

1. 연구 목적

남북한 통일 과제는 우리민족이 언젠가는 달성해야 할 필수과제이며, 따라서 통일대비 작업도 정부 부처 및 관련 연구기관 등에서 각 부문별로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왔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통일대비 작업에는 각 부문별

모두가 한결같이 중요함에는 틀림없지만, 그 중에서도 군사분야에 관한 통일 대비의 중요성은 독일, 베트남, 예멘 등의 분단국 통일사례에 비추어 볼 때 통일작업 자체의 성패를 가늠할 수 있는 가장 민감하고 중대한 부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간 국내에서 '군사분야 통일대비'의 핵심으로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아 온 이슈는 '남북한 군사통합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데에 있었던 것 같다. 반면, 군사통합 과정 이전에 '반드시 선결되어야 할 필수 과제인 '통일한국군의 바람직한 군사체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하는 이슈에 대해서는 그간 군사 전략, 군사력 규모, 군사력 건설방향 등 부분적으로 이론적 분석을 한 연구들은 다소 있었으나, 본 연구처럼 통일한국의 군사체계 전반적으로 검토한 연구는 드문 편이라 할 수 있다.¹⁾

이러한 맥락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년간 군의 고위직을 경험하면서 각 부문별 전문경험과 식견을 겸비한 실무적 차원의 군사전문가 집단인 예비역 장성들을 대상으로, 전문가 의견조사를 실시하여 이들의 견해를 수렴함으로써 통일한국군의 바람직한 군사체계 모델을 제시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물론 통일방식이 흡수통일이나 합의통일이나, 아니면 한국주도이나 북한주도이나에 따라 통일한국군의 군사체계가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수도 있겠으나, 한편으로는 통일방식과 무관하게 통일당시의 여건에 가장 적합한 통일한국의 군사체계 모델 설정이 어느 정도 가능하리라는 것이 본 연구자의 입장이다. 극단적인 경우 북한주도의 남한흡수 통일방식에 의해 한반도 통일이 되더라도 통일한국을 둘러싼 주변국의 위협은 상수(常數)로 남아 있으며, 북한군이 주체가 되는 통일한국군의 가장 바람직한 군사체계 모델 역시 통일당시 주변정세 변화와 미래전 양상에 따라 설정되어야 한다는 점은 공통사항이기 때문이다. 굳이 본 연구에서 가상의 통일방식을 상정한다면 한국주도의 한반도 통일을 물론 염두에 둔 것임을 밝힌다.

기존의 군관련 설문조사 등이 많으나, 예비역 장성들만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는 접근 자체가 쉽지 않은 관계로 매우 드문 경우이며,²⁾ 또한 이들은

1) 통일한국군 군사체계에 관한 전반적 기획 과제의 예로는, 국제평화전략연구원 세미나 (1995.11.7) 주제인 <통일한국군 군사체계>와 한국군사문제연구원 발간 『한국군사』, 제5호; (1997.7)의 특집주제 <남북한 군사체계와 통일한국군 모델> 등이 있다.

2) '통일한국군 군사체계' 이슈는 아니지만, '군이미지/군 사기·복지/병무·동원/국방비/군사안보/예비역 지원' 등 국방현안 전반에 걸쳐 예비역 장성·대령 888명의 전문가 의견 조사를 실시한 최근의 드문 예로 배진수·황용남, 『98 국방현안 인식조사: 예비역 장

군과 국방 부문의 고위직을 직접 경험한 동질의 집단이라는 점에서 전문가 조사대상으로서의 가치도 함께 보유하고 있어 그 가치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된다.

2. 연구 방법

설문조사는 1999년 4월 17일부터 4월 28일까지 예비역 장성 총 600명에게 조사대상자의 익명성과 자유로운 설문에 대한 응답을 확보하기 위해 우편 설문조사방법을 선택하였으며, 회수된 300명의 응답지를 토대로 설문결과를 분석하였다.

가. 조사대상자의 선정과 특성

설문대상은 설문조사 당시 재단법인 한국군사문제연구원에서 국방·군사 연구자문활동을 수행 중인 예비역 장성 1,500여명 중 최근 전역자 순으로 600명을 선정하였는데, 전체 조사대상자 600명 중 최종 회수된 300명의 응답자 특성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에서와 같이 조사대상자들의 대부분인 80% 정도가 군경력 30년 이상으로서, 전역시 계급별로는 준장이 153명(51%), 소장이 97명(32.3%), 중장이 37명(12.3%), 대장이 12명(4%) 등으로 중장·대장 등 고위 장성도 50명 정도 포함되어 있다. 군별로는 육군이 220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73%, 해군이 36명으로 12%, 공군이 42명으로 14%로서 실제 모집단의 육·해·공군 구성비와 큰 차이는 보이지 않는다.

〈표 1〉 조사대상자의 특성

BASE FOR 전체응답자	사례수	응답자특성(%)
■ 전 체	(300)	100.0
● 군 복 무 년 수		
29 년 이하	(57)	19.0
30 년 - 34 년	(194)	64.7
35 년 이상	(49)	16.3
● 군 별		
육 군	(220)	73.3
해 군	(36)	12.0
공 군	(42)	14.0
모름/무응답	(2)	0.7
● 전역시 계급		
준 장	(153)	51.0
소 장	(97)	32.3
중 장	(37)	12.3
대 장	(12)	4.0
모름/무응답	(1)	0.3

나. 설문지의 구성 및 분석방법

설문내용은 군사체계에 관한 것인데, 군사체계는 원래 군령과 군정 분야로 구분할 수 있으나 군정 기능은 군령 분야인 군사력의 효율적 운용을 뒷받침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군사체계 모델의 골격은 군령분야의 요소들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군령분야의 중요 요소인 군사전략, 군사력, 군구조, 무기체계 등의 부문을 위주로 설문내용을 구성하였으며 문항구성은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설문지 구성내용

군사체계의 주요 영역	세 부 문 항
군사전략	통일한국군의 군사전략 개념
군사력 규모 및 배치	통일한국군의 적정 병력규모
	통일한국군의 군사력 배치
군구조 및 지휘체계	통일한국군의 군사지휘체계
	통일한국군의 상비전력과 예비전력 구성비
	통일한국군의 3군 구성비
무기체계	통일한국군의 핵심 무기체계 보유 우선순위
	통일한국군의 각 군별 역점 무기체계
	통일한국군의 핵무기 능력
	통일한국군의 미사일 능력

설문지 응답결과는 Spsswin 7.0프로그램에 의거 분석하였으며, 각 문항별 설문결과와 해석에 있어서 전체응답자의 응답결과와 각 인적사항별 응답결과 비교시 각 인적사항별로 특이한 패턴이 나타나는 경우는 해당 인적사항에 관한 응답 분석을 추가하여 전체응답자의 설문결과 해석이 왜곡되지 않도록 주의하였다.

II. 군사체계의 개념과 구성

1. 군사체계의 개념

군사체계란 용어는 군사용어로서 표준화되어 있거나 보편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 그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군사체계란 군사와 체계의 합성어로 군사의 체계란 뜻으로 이해하고 사용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상 이를 좀 더 명확하게 정의하기 위하여 먼저 이들

두 용어의 의미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군사’는 일반적으로 “군대, 군비 및 전쟁에 관한 일”³⁾로서 전쟁을 전제로 하여 평시에는 군사력을 건설, 유지 및 관리하고 유사시에는 준비된 군사력을 사용하여 당면한 국가의 위협을 배제하거나 정책목적을 달성하는 위기관리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군사의 대상은 전쟁에 관련된 일이며 군사의 목적은 개인이나 국가의 생존과 번영이다. 한편 ‘체계’란 “복잡한 환경 속에서 전체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독립적이거나 공동으로 작용하는 상호 관련된 부분의 집합 또는 어떤 공동 목적에 기여하는 구성요소간의 상호의존 관계에 의해 형성되는 복합체로서 하나의 복합적 목적 또는 기능을 위해서 하부기능(sub function)을 갖는 몇 가지 구성요소로 구성된다”⁴⁾고 정의되고 있다.

따라서 군사체계란 군사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와 군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실천제도 및 방법의 개념으로 파악할 수 있는데, 이는 크게 용병분야(군령)와 양병(군정)분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군사체계를 ‘군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군령 및 군정의 제요소가 수행할 업무와 기능의 체계’라고 정의한다.

2. 군사체계의 구성

군사체계의 대상과 구성 및 범위에 대해서는 나라마다 차하고 있는 국가적 전통과 상황에 따라서 다소의 차이가 있지만 큰 줄거리는 대동소이한 편이다. 한국 군사체계의 출발점은 「정부조직법」 제31조(국방부 직무) “국방부장관은 국방에 관련된 군정 및 군령과 기타 군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에서 구체화가 가능하다. 또 「국군조직법」 제8조(국방부장관의 권한)는 “국방부장관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군사에 관한 사항을 장리(掌理)하고 합동참모의장과 각군 참모총장을 지휘 감독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군사가 수행할 업무와 기능은 군령과 군정 및 기타 사항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군령이란 “군의 용병작전을 중심으로 하는 업무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 사항의 업무”⁵⁾를 의미하며 군대의 지휘운영에 관해서 상급지휘관으로부터 하급지

3) 한국어대사전 편찬회, 『한국어대사전』 (서울: 현문사, 1976), p. 124.

4) 육군본부, 『한국군사사상』 (1992), p. 319.

5) 국방대학원, 『안보관계용어집』 (1985), p. 152.

휘관에 행해지는 의사의 강제이다. 군령에 관련된 업무는 군사력의 운용 즉 용병에 관한 것이며 이는 국가가 설정한 전쟁의 목적과 전쟁의 정치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군사전략을 수립하고 군사작전을 수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군령의 업무체계는 용병체계라 할 수 있으며, 용병체계는 다시 군사사상과 교리를 기반으로 하여 군사전략과 작전술 및 전술의 3단계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⁶⁾ 여기서 군사전략은 최고수준의 전쟁수행 이론으로서 용병에 있어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며 그 하위 수준의 작전과 전술에 영향을 미치고, 작전술은 군사전략의 지침과 지도하에, 전술은 작전술의 지침과 지도하에 시행된다.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는 용병체계는 전략, 작전, 전술, 군구조, 무기체계의 기능에 의하여 수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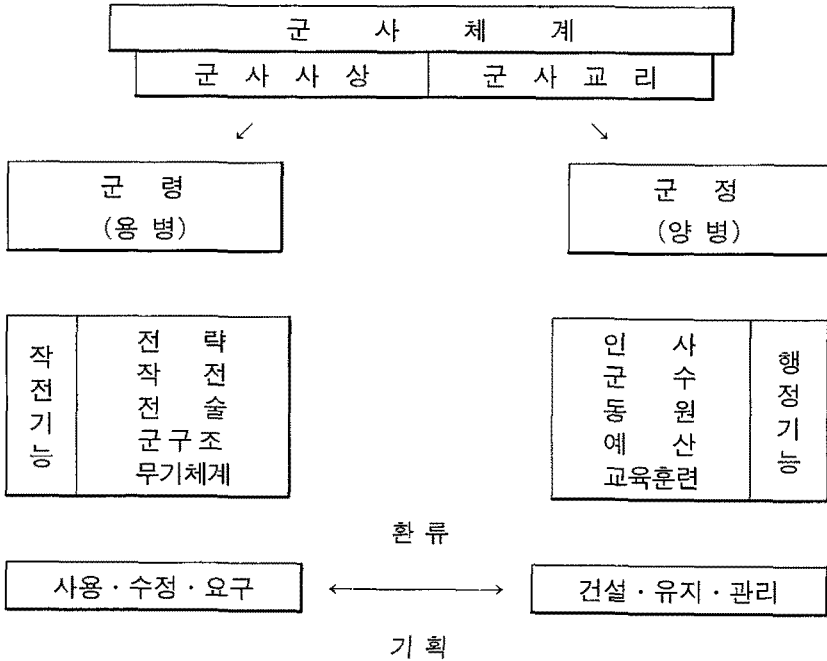
군정이란 “군대가 용병(전략)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인사, 교육 등)과 군사분야의 준비지원업무⁷⁾”를 의미한다. 군정업무는 군사력의 효율적인 운용을 뒷받침하기 위한 군사력의 건설, 정비, 유지를 관리하는 것으로 양병에 관한 업무들이다. 이는 다시 군사정책과 군사관리 업무로 구분할 수 있는데, ‘군사정책’은 협의의 개념으로서 전쟁에 대비해서 군사력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의 제기준을 설정하는 것을 말하고 ‘군사관리’는 이러한 기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군사력, 즉 인적 요소와 물적 요소를 건설하고 유지하는 업무를 말한다. 즉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는 양병체계는 인사, 병무, 군수, 동원, 예산, 시설, 교육훈련의 기능에 의하여 수행된다.

군사체계의 구성을 요약하면 <그림 1>에서와 같이 크게 군령(용병)과 군정(양병)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이 두 분야의 기능은 계획의 수립으로부터 집행에 이르는 전과정에 걸쳐 투입과 산출절차에 의한 환류 과정을 거치고 목적과 수단의 연계를 통하여 양 기능이 통합됨으로써 단일 군사체계를 이루게 된다.

6) ‘군사사상’은 전쟁을 준비하고 수행함에 있어서의 합의된 기준과 논리적 근거이며, ‘군사교리’는 군사작전을 지도하는 근본적 원칙을 의미한다. 국방대학원, 『군사교리』(1993), p. 7.; ‘군사전략’은 군사력을 사용하거나 위협함으로써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군대를 운용하는 기술이며, ‘작전술’은 군사전략의 지도하에 전투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조건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대규모의 군사적 기동을 말하며, ‘전술’은 전투 또는 교전에서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 전장내에서 무기체계의 총력전을 행사하여 적의 전투의지를 분쇄하는 기술이다. 육군사관학교 군사학처, 『전략개론』 (서울: 한원, 1991), p. 24 참고.

7) 국방대학원, 『안보관계 용어집』 (1993), p. 152.

〈그림 1〉 군사체계의 구성



III. 통일한국군의 군사체계 의견조사 결과

1. 통일한국의 군사전략 개념

군사전략의 개념으로 크게 공세전략, 방어전략, 공세적 방어전략의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현재 한국은 공세적 방어전략의 개념을 택하고 있고, 공세전략은 이스라엘이나 북한의 군사전략이 여기에 속한다.

통일 이후 한국군의 바람직한 군사전략 개념은 어떠한 것으로 생각하느냐? 라는 물음에 대해 〈표 3〉에서와 같이 조사대상자의 83.7%가 공세적 방어전략(억제전략), 15%가 방어전략, 0.7%가 공세전략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세적 방어전략에 대한 선호 경향은 군별의 경우 해군이 88.9%로 육군의 82.7%와 공군의 83.3%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통일한국이 주변 강대국에 대하여 공세전략을 취한다는 것이 부적절함을 의미하며, 또한 방어위주의 전략으로는 국가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곤란하고 국력소모만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통일한국군의 전략개념으로는 공세적 방어전략에 입각하여 전략목표는 방어에 두되 필요시 제한된 수준에서 공세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 경우 역제를 달성할 수 있는 능력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⁸⁾

〈표 3〉 통일한국군의 군사전략 개념

BASE FOR 전체응답자	사례수 %	공세전략 %	방어전략 %	공세적 방어전략 (역제전략) %	기타 %	모름/ 무응답 %	계 %
■ 전 체	(300)	0.7	15.0	83.7	0.3	0.3	100.0
● 군 별							
육 군	(220)	0.9	15.5	82.7	0.5	0.5	100.0
해 군	(36)	0.0	11.1	88.9	0.0	0.0	100.0
공 군	(42)	0.0	16.7	83.3	0.0	0.0	100.0
모름/무응답	(2)	0.0	0.0	100.0	0.0	0.0	100.0
● 전역시 계급							
준 장	(153)	0.7	11.1	88.2	0.0	0.0	100.0
소 장	(97)	1.0	20.6	77.3	0.0	1.0	100.0
중 장	(37)	0.0	18.9	81.1	0.0	0.0	100.0
대 장	(12)	0.0	8.3	83.3	8.3	0.0	100.0
모름/무응답	(1)	0.0	0.0	100.0	0.0	0.0	100.0

2. 통일한국군의 적정군사력 규모 및 배치

가. 통일한국군의 적정 병력규모

8) 이민룡, “남북한 군사전략과 통일한국군,” 『한국군사』, 제5호 (1997. 7), pp. 16-20.

즉, 통일한국군의 전체 병력규모는 총인구 대비 많아야 1%이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전체응답자의 90%로 지배적이며, 가장 선호하는 병력규모는 전체 응답자의 28.7%가 제시한 총인구 대비 0.4-0.5% 수준인 30만-35 만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40 만명 또는 50 만명 정도라는 견해도 전체응답자의 22%, 20%로 나타나 그리 큰 차이는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전체 응답자의 70%정도는 통일한국군의 적정 병력규모를 30 만-55 만명 정도가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응답자들간 다소간의 견해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통일한국 당시의 주변 위협 인식에 대한 차이일 것으로 해석된다. 참고로 기타 연구들에서 제시된 통일한국군의 적정 병력규모는 다음 <표 5>와 같다.

<표 5> 기존연구들의 통일한국군 적정 병력수 추산 비교⁹⁾

기 존 연 구	통일한국군의 적정 병력수	통일한국 총인구 대비 병력수 비율
박재하(1991)	57만명	0.934 %
김충영(1992)	40만-46만명	0.6 - 0.7 %
조동호(1997)	44만명	0.64 %
이춘근(1997)	70만명	1.0 %
이병근·유승경(1998)	46만명	0.67 %
윤진표(1998)	42만-48만명	0.6 - 0.7 %
이철기(1999)	24만-28만명	0.35 - 0.35 %
김충영·안종일(1999)	43만명 (상한 65만명)	0.61%(상한 0.93%)

나. 통일한국군의 군사력 배치

통일한국은 주변의 불특정 위협에 대처해야 하지만 장차 예상되는 위협의 우선 순위에 따라 군사력을 중점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한반도의 지리적 위치와 위협의 대상을 고려해 볼 때 평시부터 군사력을 배치 운용할 지역은 중국과의 육지접경지대 및 서해안 접경지대, 러시아와의 육지 및 동북해안 접경지대, 일본과의 남동해안 접경지대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통일한국 국경방어군의 최우선 배치지역은 어디라고 생각하느냐? 라는 물음에 대해 <표 6>에서와 같이 조사대상자의 81.7%가 중국

9) 이에 대한 구체적 논의에 대해서는 이철기, “남북한의 적정군사력과 통일국가의 군사력 수준,”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제26회 남북한 군사력평가 학술시민포럼(1999. 4. 23), pp. 20-25 참조.

과의 육지접경지대, 7%가 일본과의 남동해안 접경지역, 4.3%가 중국과의 서해안 접경지대, 1.7%가 러시아와의 육지접경지대, 1%가 러시아와의 동북해안 접경지대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응답자들이 중국과 일본의 군사력 증강 가능성에 대한 경계와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분석되며, 특히 해군의 경우는 해군의 특성상 육지 국경지대 보다는 중국·일본 등과의 해안 접경지대 방어를 강조하는 경향이 육군과 공군에 비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통일한국군의 국경 방어군 배치지역

BASE FOR 전체응답자	사례수	중국과의 육지 접경지대 (%)	중국과의 서해안 접경지대 (%)	러시아와의 육지 접경지대 (%)	러시아와의 동북해안 접경지대 (%)	일본과의 남동해안 접경지대 (%)	모름/ 무응답 (%)	계
■ 전 체	(300)	81.7	4.3	1.7	1.0	7.0	4.3	100.0
● 군 번								
육 군	(220)	82.3	3.6	1.8	0.9	6.4	5.0	100.0
해 군	(36)	69.4	11.1	2.8	2.8	13.9	0.0	100.0
공 군	(42)	88.1	2.4	0.0	0.0	4.8	4.8	100.0
모름/무응답	(2)	100.0	0.0	0.0	0.0	0.0	0.0	100.0
● 전역시 계급								
준 장	(153)	80.4	5.2	0.7	2.0	7.8	3.9	100.0
소 장	(97)	81.4	5.2	3.1	0.0	5.2	5.2	100.0
중 장	(37)	89.4	0.0	0.0	0.0	8.1	2.7	100.0
대 장	(12)	75.0	0.0	8.3	0.0	8.3	8.3	100.0
모름/무응답	(1)	100.0	0.0	0.0	0.0	0.0	0.0	100.0

3. 통일한국군의 군구조

가. 통일한국군의 군사지휘체계

군사지휘체계는 일반적으로 다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진다. 첫째, 단일 군제는 3군 기준 없이 단일 지휘기구하에 목적 및 기능별로 부대를 편성하여 군참모총장이 군령과 군정권을 행사하는 지휘체계로서 캐나다와 스위스 등이 그 대표적 예이다. 둘째, 3군제는 육·해·공군의 3군이 실제적으로 존재하

먼서 장관이 3군에 대한 군정·군령권을 행사하는 한편 합참의장은 군령계통 외에서 장관의 군령행사를 보좌(비통제형 합참제)하는 지휘체계로서 일본이 대표적인 예이다. 셋째, 합동군제는 3군제 기반 위에 3군의 세력을 통합하기 위한 합동참모본부를 설치(통제형 합참제)하여 군령권은 장관이 합참의장을 통하여 행사하고 군정권은 각군총장이 행사하는 지휘체계로서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이 그 예이다. 마지막으로, 통합군제는 단일참모총장 아래 각군 사령부가 있으며 장관은 이 단일참모총장을 통하여 군정·군령권을 행사하고 참모총장에게는 작전 및 행정지원권을 부여하여 3군의 완전통합을 달성하려는 형태로서 자유중국, 이스라엘, 소련, 중국, 북한 등이 그 예이다.

이러한 배경하에, 통일한국군의 바람직한 군사지휘체계는 어떠한 유형인가? 하는 물음에 대해 <표 7>에서와 같이 조사대상자의 62.3%가 통합군제, 17%가 합동군제, 16.3%가 3군제, 2.3%가 단일군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군별로 비교하면 육군의 78.6%가 통합군제를 선호하는 반면에, 해군의 55.6%와 공군의 42.9%는 통합군제 보다는 오히려 3군제를 가장 선호하고, 그 다음 합동군제를 선호하며, 통합군제는 가장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통합군제가 육군 위주의 군구조가 될 가능성을 예상하는 해군과 공군의 부정적 시각을 대변해 주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표 7> 통일한국군의 군사지휘체계

BASE FOR 전체응답자	사례수	단일군제 (%)	3군제 (%)	합동군제 (%)	통합군제 (%)	모름/무응답 (%)	계
■ 전 체	(300)	2.3	16.3	17.0	62.3	2.0	100.0
● 군 번							
육 군	(220)	2.7	5.0	11.8	78.6	1.8	100.0
해 군	(36)	0.0	55.6	27.8	13.9	2.8	100.0
공 군	(42)	2.4	42.9	35.7	16.7	2.4	100.0
모름/무응답	(2)	0.0	0.0	0.0	100.0	0.0	100.0
● 전역시 계급							
준 장	(153)	2.6	21.6	19.0	54.9	2.0	100.0
소 장	(97)	3.1	11.3	16.5	67.0	2.1	100.0
중 장	(37)	0.0	10.8	8.1	81.1	0.0	100.0
대 장	(12)	0.0	8.3	25.0	58.3	8.3	100.0
모름/무응답	(1)	0.0	0.0	0.0	100.0	0.0	100.0

나. 통일한국군의 상비전력과 예비전력 구성비

한 국가에 소요되는 총체적 전력 중에서 상비전력과 예비전력(동원전력)의 비율은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는 그 국가가 당면하고 있는 위협의 성격, 형태, 경제력, 인구, 군사적 전통에 따라 다양하다. 평화공존시 대부분의 국가들은 상비전력은 소수 정예화의 전문직업주의로 육성하고 유사시 강력한 예비전력을 동원하는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상비전력의 수준은 정치, 경제, 군사전략 및 전장조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상비군 대비 예비군의 세계 전체의 구성비 평균은 약 1.8:1로서, 예비군은 상비군의 42% 정도에 불과한 데 비해 남북한의 현 예비군 규모는 각각 약 500 만명에 달하여 지구상 어느 국가에서도 전례가 없는 대규모의 수준을 유지함으로써 낭비가 심대하다. 상비군과 예비군의 구성 수준은 각국의 군사전략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나 즉응 태세를 견지하고 있는 남북한의 전략 개념에 비추어 보면 매우 낭비적이고 비합리적이다. 이러한 문제는 총력전 개념의 산물이나 통일 후에는 새로운 전략환경과 전략개념에 따라 혁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과제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통일한국의 바람직한 상비전력과 예비전력의 구성비는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 라는 물음에 대해 <표 8>에서와 같이 조사대상자의 42.7%가 1:5, 31.7%가 1:2, 11.7%가 1:10, 5.3%가 1:8, 4.7%가 1:1, 0.7%가 1:0.5의 구성비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별로는 육군(45%)과 공군(35.7%)의 경우 상비전력과 예비전력의 구성비로서 1:5를 가장 선호하는 반면, 해군(41.7%)은 1:2의 구성비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타군에 비하여 육군의 높은 수준은 지상전투의 특성을 감안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표 8〉 통일한국군의 상비전력 vs. 예비전력의 구성비

BASE FOR 전체응답자	사례수	1:0.5 (%)	1:1 (%)	1:2 (%)	1:5 (%)	1:8 (%)	1:10 (%)	기타	모름/ 무응답 (%)	계
■ 전 체	(300)	0.7	4.7	31.7	42.7	5.3	11.7	1.7	1.7	100.0
● 군 번										
육 군	(220)	0.5	4.5	30.0	45.0	6.4	12.3	0.5	0.9	100.0
해 군	(36)	0.0	5.6	41.7	36.1	2.8	11.1	2.8	0.0	100.0
공 군	(42)	2.4	4.8	31.0	35.7	2.4	9.5	7.1	7.1	100.0
모름/무응답	(2)	0.0	0.0	50.0	50.0	0.0	0.0	0.0	0.0	100.0
● 전역시 계급										
준 장	(153)	0.7	5.2	28.1	45.8	5.2	12.4	1.3	1.3	100.0
소 장	(97)	1.0	5.2	40.2	38.1	3.1	10.3	1.0	1.0	100.0
중 장	(37)	0.0	0.0	24.3	45.9	10.8	10.8	5.4	2.7	100.0
대 장	(12)	0.0	8.3	33.3	33.3	0.0	16.7	0.0	8.3	100.0
모름/무응답	(1)	0.0	0.0	0.0	0.0	100.0	0.0	0.0	0.0	100.0

이러한 조사결과와 세계 추세를 감안할 때 통일한국군의 즉응예비군은 상비군의 다섯 배 수준을 넘지 않는 범위로 한정하여 설계해야 하며, 즉응예비군 체제는 미래전의 단기속도전과 제한전을 감안할 때 24시간 이내에 동원이 가능한 체제를 유지하고 상비군 수준의 전력을 보유하는 예비군 정예화 개념에 입각해야 할 것이다.

다. 통일한국군의 3군 구성비

육·해·공군의 각 군 구성비 논의는 현재 육군 위주의 군구조 특성상, 육군의 비율을 어느 정도까지 감축할 것이냐의 논의와 그 다음해공군의 비중을 어떻게 둘 것이냐의 논의로 구분될 수 있다. 이러한 논의에 비추어, 각 군의 구성비율은 어떻게 구성하는 것이 합리적인가? 하는 물음에 대해 〈표 9〉에서와 같이 육군 : 해군 : 공군의 구성비율을 조사대상자의 24%는 60% : 15% : 25%, 22.7%가 60% : 25% : 15%, 13.7%가 70% : 15% : 15%, 7.3%가 65% : 15% : 20%의 비율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분석결과 46.7%가 육군비율을 60% 정도로 줄여야 한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 응답자들에 한해서 해군 비율보다는 공군비율이 더 높아야 한

다는 견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가장 선호한 각군 구성비는 전체응답자의 24%가 제시한 육:해:공군 비율=60%:15%:25% 인 것으로 나타났다.

역시 군별로 비교해 보면 각 군 구성비에 관하여 각 군별 현저한 견해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해·공군 출신 응답자의 경우, 가장 적은 육군 비율 60%까지 제시되어 있는 설문문항의 보기 항목에 대해 과반수가 '기타/무응답'으로 응답하고 있어 육군의 비율을 60%이하로 줄여야 한다는 견해를 강하게 시사하고 있으며, 해·공군의 비율에 있어서도 각자의 출신 군별 중요성을 상대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각 군 구성비 조정이 험난한 과제가 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¹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군의 경우는 항공 근접지원 전력의 중요성을 감안한 때문이지 해군보다는 공군의 비중을 다소 더 중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9〉 통일한국군의 3군 구성비

BASE FOR 전체응답자	사 례 수	82%:8% :10%	75%:10% %:15%	75%:15% %:15%	65%:15% %:20%	60%:15% %:25%	60%:25% %:15%	모름/ 기타	무응답	계
■ 전 체	(300)	1.0	4.7	13.7	7.3	24.0	22.7	26.3	0.3	100.0
● 군 번										
육 군	(220)	0.9	6.4	17.3	8.6	27.3	23.6	15.9	0.0	100.0
해 군	(36)	2.8	0.0	0.0	2.8	0.0	41.7	52.8	0.0	100.0
공 군	(42)	0.0	0.0	7.1	4.8	26.2	0.0	59.5	2.4	100.0
모름/무응답	(2)	0.0	0.0	0.0	0.0	50.0	50.0	0.0	0.0	100.0
● 전역시 계급										
준 장	(153)	1.3	5.2	12.4	4.6	22.9	24.8	28.1	0.7	100.0
소 장	(97)	1.0	4.1	15.5	10.3	24.7	25.8	18.6	0.0	100.0
중 장	(37)	0.0	2.7	10.8	13.5	32.4	13.5	27.0	0.0	100.0
대 장	(12)	0.0	0.0	25.0	0.0	8.3	0.0	66.7	0.0	100.0
모름/무응답	(1)	0.0	100.0	0.0	0.0	0.0	0.0	0.0	0.0	100.0

10) 3군의 균형 논리는 각 군이 필요로 하는 능력을 구비해야 한다는 보편적 논리를 들 수 있다. 3군 구성비를 결정하는 요인으로서 ① 지정확적인 조건, ② 위협 여건, ③ 군사력 규모, ④ 군사체제, ⑤ 군의 전통, ⑥ 국방비의 가용성 등이 포함되며, 이들 여러 요인들이 한반도와 유사한 이탈리아, 인도, 파키스탄, 터키, 태국, 이집트 등 6개국의 경우와 비교해 보면 육:해:공군의 비율은 77:10.5:12.6%라는 견해도 있다. 장문석, “남북한 군구조와 통일한국군,” 『한국군사』, 제5호 (1997. 7), p. 49.

4. 통일한국군의 무기체계

가. 통일한국군 핵심 무기체계의 보유 우선순위

무기체계는 국가안전보장의 수단으로서 전쟁승패의 핵심적 요소이다.¹¹⁾ 과학기술 발달에 따른 첨단무기체계는 전략 수행에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첨단 무기체계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므로 경제력과 과학기술의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군별 무기체계 소요 경쟁으로 인하여 과잉 또는 과소 소요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체적이고 복합적인 분석, 평가에 의하여 선정,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통일한국군이 반드시 보유해야 한다고 생각되는 무기체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라는 물음에 대해 <표 10>에서와 같이 공중조기경보기(39.3%), 핵무기(38.0%), 대륙간 탄도미사일(13%), 이지스함(3%), 생화학 무기(1.7%), 항공모함(1.3%), 장거리 폭격기(1%), 무인정찰기(0.7)의 순으로 나타났다. 핵무기 보유와 미사일능력 보유 역시 가장 선호하는 무기체제로 나타난 결과는 현재 한국의 핵능력과 미사일 수준을 고려할 때 많은 것을 시사해 준다. 한편, 이러한 조사결과 응답자들은 통일한국이 접하게 될 군사상황은 전면전이 발생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국지적 분쟁이나 강압외교의 수단으로서 무력시위에 대비한 정보능력확보가 절실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또한 확실한 억제 수단으로서 핵무기와 미사일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 10> 통일한국군의 핵심 무기체계 보유 우선순위

	사례수	%
■ 전 체	(300)	100.0
공중조기 경보기	(118)	39.3
핵무기	(114)	38.0
대륙간 탄도미사일	(39)	13.0
이지스함	(9)	3.0
기타	(6)	2.0
생화학 무기	(5)	1.7
항공 모함	(4)	1.3
장거리 폭격기	(3)	1.0
무인정찰기	(2)	0.7

11) 국방대학원, 『안전보장이론(II)』 (국방대학원, 1999), p. 497.

나. 통일한국군의 각 군별 최우선 역점 무기체계

통일한국군이 역점을 두어야 할 각 군별 무기체계의 우선순위에 대해 알아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 <표 11>과 같다.

<표 11> 통일한국군 각 군별 역점 무기체계 우선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육군 무기체계	미사일 (69.3%)	헬기 (14.0%)	전차 (8.7%)	야포 (4.3%)	장갑차 (0.7%)
해군 무기체계	잠수함 (43.7%)	구축함 (32.3%)	항공모함 (17.3%)	상륙함정 (1.3%)	
공군 무기체계	조기경보기 (46.3%)	전투기 (26.0%)	전폭기 (23.3%)	공중급유기 (1.3%)	

통일한국군의 육군이 최우선적으로 보유해야 할 무기체계로는 조사대상자의 69.3%가 미사일, 14%가 헬기, 8.7%가 전차, 4.3%가 야포, 0.7%가 장갑차 등의 순으로 보고 있다. 미사일 무기체계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육군, 해군, 공군 공히 같은 견해를 보이고 있을 정도로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미래전 양상에 대비하여 정밀 타격 능력을 갖춘 미사일이 사상자를 최소화하면서 작전 및 전략적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중요한 무기체계라고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다음 통일한국군의 해군이 최우선적으로 보유해야 할 무기체계로는 조사대상자의 43.7%가 잠수함, 32.3%가 구축함, 17.3%가 항공모함, 1.3%가 상륙함정 순으로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군별에 관계없이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또한 통일이후 한국 해군의 역할과 임무가 주변국으로부터 초래될 수도 있는 잠재적 해양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억제 및 방어전략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해상로 및 해양자원을 보호하는 것 등을 고려할 때 잠수함을 우선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견해와도 일치하고 있다.¹²⁾

12) 김철환, “남북한 무기체계의 통일한국군,” 『한국군사』, 제5호 (1997.7), p. 83.

한편 통일한국군의 공군이 최우선적으로 보유해야 할 무기체계로는 조사대상자의 46.3%가 조기경보기, 26%가 전투기, 23.3%가 전폭기, 1.3%가 공중급유기 순으로 응답하였다. 이러한 응답결과는 대륙과 대양의 주변국에 대처할 수 있도록 원거리의 적을 조기 탐지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조기경보기와 최선에 장거리 폭격기를 반드시 보유해야 할 무기체계라고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 통일한국군의 핵무기 보유여부

통일한국은 동북아 4강 중 미국, 중국, 러시아 등 핵 보유국의 핵 위협전략에 대응하여 통일한국이 채택할 수 있는 세 가지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첫째, 핵무기를 보유하는 방안이다. 통일한국이 국제법상으로는 핵무기를 보유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이를 무시하고 핵무기를 제조하여 보유한다면 국제적인 제재와 비난으로 엄청난 불이익이 예상된다. 둘째, 핵무기는 보유하지 않더라도 제조능력만 보유하는 방안이다. 이 안은 어느 정도의 전쟁억제효과를 달성할 수 있으며 국제적 제재나 비난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핵무기 보유는 물론 제조능력까지 보유하지 않는 방안이다. 이 경우 통일한국은 주변 핵 보유국과의 동맹에 의한 핵 연합전략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한국의 핵무기 보유여부에 대해서는 아주 민감한 사항이면서도 가장 주목의 대상이 되는 이슈이다. 이와 관련하여 통일한국군의 핵무기 보유여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는 물음에 대해 <표 12>에서와 같이 조사대상자의 57%가 '핵무기는 보유하지 않더라도 제조능력은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39%가 '핵무기를 반드시 보유해야 한다', 3.3%가 '제조능력조차 보유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표시하고 있다. 이 결과에 비추어 본다면, 조사대상자의 96%가 핵무기의 제조능력은 최소한 보유해야 하는 것에 동의를 표시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중장출신 이상의 응답자 49명은 '핵무기 제조능력조차 보유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핵무기 보유능력에 대해 보다 강한 애착을 나타내고 있다.

〈표 12〉 통일한국군의 핵무기 보유능력

BASE FOR 전체응답자	사례수	반드시 보유 (%)	제조능력 정도만 보유 (%)	제조능력 조차 미보유 (%)	기타	모름/ 무응답 (%)	계
■ 전 체	(300)	39.0	57.0	3.3	0.3	0.3	100.0
● 군 번							
육 군	(220)	44.1	52.7	2.7	0.0	0.5	100.0
해 군	(36)	27.8	66.7	5.6	0.0	0.0	100.0
공 군	(42)	23.8	69.0	4.8	2.4	0.0	100.0
모름/무응답	(2)	0.0	100.0	0.0	0.0	0.0	100.0
● 전역시 계급							
준 장	(153)	42.5	51.6	4.6	0.7	0.7	100.0
소 장	(97)	35.1	61.9	3.1	0.0	0.0	100.0
중 장	(37)	37.8	62.2	0.0	0.0	0.0	100.0
대 장	(12)	33.3	66.7	0.0	0.0	0.0	100.0
모름/무응답	(1)	0.0	100.0	0.0	0.0	0.0	100.0

라. 통일한국군의 미사일 능력 수준

한국의 미사일 능력은 한미 미사일각서에 의한 사거리 180Km 수준정도가 있으나 최근 한미간에 300Km까지는 상향조정된 것으로 일컬어지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미사일 수준은 1천 5백 내지 2천Km까지 가능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점에서 통일한국군의 미사일 수준은 다음 몇 가지가 가능할 것이다. 즉 ①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에 정한 3백Km 수준, ② 일본전역과 중국 핵심지역 도달 가능한 2천Km 수준, ③ 러시아와 미국 일부 도달 가능한 6천km 수준, ④ 세계 전지역 도달 가능한 6천Km 이상 수준 등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통일한국군이 보유해야 할 미사일 능력수준은 어느 정도의 사정거리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느냐? 라는 물음에 대해 〈표 13〉에서와 같이 조사대상자의 72%가 통일한국군이 보유해야 할 미사일 능력 수준은 2천Km(일본전역, 중국핵심지역 도달), 12.7%가 6천Km(러시아와 미국 일부 도달), 7.3%가 6천Km이상(세계 전지역 도달), 7.3%가 3백Km(미사일 통제기구 MTCR 한도)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중·일의 군사력

증강 우려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또한 통일한국의 미사일 능력이 6천 km 내지 6천Km 이상이어야 한다는 견해도 12.7%나 되는데 이는 미사일을 군사목적 뿐만 아니라 평화적 차원에서 경제적으로도 가치 있는 국가기술로서의 우주개발분야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표 13〉 통일한국군의 미사일 능력 수준

BASE FOR 전체응답자	사례수	3천km (%)	2천km (%)	6천km (%)	6천km 이 상 (%)	기타	모름/ 무응답 (%)	계
■ 전 체	(300)	7.3	72.0	12.7	7.3	0.3	0.3	100.0
● 군 번								
육 군	(220)	9.1	69.1	13.2	8.2	0.5	0.0	100.0
해 군	(36)	5.6	80.6	8.3	5.6	0.0	0.0	100.0
공 군	(42)	0.0	81.0	11.9	4.8	0.0	2.4	100.0
모름/무응답	(2)	0.0	50.0	50.0	0.0	0.0	0.0	100.0
● 전역시 계급								
준 장	(153)	7.2	69.9	13.1	9.2	0.0	0.7	100.0
소 장	(97)	9.3	74.2	10.3	6.2	0.0	0.0	100.0
중 장	(37)	5.4	70.3	16.2	5.4	2.7	0.0	100.0
대 장	(12)	0.0	83.3	16.7	0.0	0.0	0.0	100.0
모름/무응답	(1)	0.0	100.0	0.0	0.0	0.0	0.0	100.0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통일한국시대 대비의 일환으로 분단국 통일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군사통합의 필수 선결과제인 통일한국군의 군사체계모델을 정립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다년간 군의 고위직 경험을 가지고 있어서 군사체계에 관한 한 가장 전문적인 집단이라 할 수 있는 예비역 장성들을 대상으로 통일한국의 군사안보 전략 및 정책을 비롯하여 통일한국군의 군사력 규

모와 배치, 군 구조, 무기체계 등 각 사항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를 실시하여 이들의 견해를 수렴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 <표 14>와 같다.

(1) 통일한국군의 군사전략은 오늘날 일반화된 공세적 방어전략의 개념 위에서 수립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즉, 기본적인 군사전략의 목표는 방어에 두되 군사행동 자체는 제한된 수준에서나마 공세적으로 전개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해야 하며, 이 경우 공세전력에는 역제를 달성할 수 있는 능력에 주력해야 한다.

(2) 통일한국군의 군사력 형태는 과학화·정보화·첨단화된 기술집약형 군사력 형태로서, 동원전력 위주의 대비태세를 갖추어 평시에는 제한된 방어 충분성 개념에 입각하여 최소한의 정예화된 상비군을 유지하고 일단 유사시에는 동원전력에 의존하는 군사력 대비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한편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상비전력과 예비전력의 구성비는 1 : 5 정도가 가장 바람직할 것이라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3) 통일한국군의 적정 병력규모 범위는 상기한 바와 같이 최소한의 정예화된 기술집약형 상비군 대비태세 방향에 입각하여, 통일한국 시대의 총인구(대략 7천만 명 가정) 대비 0.4-0.8% 정도인 30만-55 만명 내외가 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육해-공군의 3군 구성비는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60% : 15% : 25%로 나타났는데, 통일한국군의 적정 병력규모를 감안하면 각 군별 적정규모는 육군 18-33 만명, 해군 4.5-8.25 만명, 공군 7.5-13.75 만명 정도가 바람직할 것임을 의미한다.

(4) 통일한국의 군사체계는 통합화 위주의 미래 군사혁신 추세를 고려하여 통합군제를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는 단일참모총장 아래 각 군 사령부가 있으며 장관은 이 단일참모총장을 통하여 군정·군령권을 행사하고 참모총장에게는 작전 및 행정지원권을 부여하여 3군의 완전통합을 달성하려는 형태를 의미한다. 그러나 한편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는 육군의 통합군제 선호경향과 대조적으로 해·공군 출신의 경우 통일한국군의 바람직한 지휘체계로 3군제를 가장 선호하고 그 다음 합동군제를 선호하며 통합군제는 가장 기피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향후 통일한국군의 군사체계 설정에 있어 가장 논란이 예상되는 분야 중 하나일 것으로 예상된다.

(5) 통일한국군의 각 군별로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무기체계로, 육군의 경우 미사일 무기체계를 해군의 경우 잠수함 전력을 그리고 공군의 경우 조기경보기 확보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6) 통일한국이 보유하여야 할 전략무기체계의 능력과 관련하여, 가장 민감할 것으로 예상되는 핵무기에 대해서는 주변국의 자국 우려로 인해 핵무기 자체를 보유하는 것보다는 필요시 핵무장 할 수 있는 체제를 구비한다는 차원에서 핵무기 제조능력 정도만 일단 보유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한편, 미사일 능력과 관련해서는 통일한국의 주변 불특정 위협에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사정거리 2천Km 정도의 미사일 능력을 보유하는 것이 억제에 바탕을 둔 공세적 방어전략 개념에서 볼 때 바람직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한 국가의 군사력 건설에는 10년 내지 20년의 장기적 플랜이 요구되는 바 향후 10년 내지 20년 이후의 한반도 통일을 가정한다면 통일한국군의 군사체계라는 중대한 과제는 지금부터 철저한 준비와 각오로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또한 이와 병행하여 주변국과의 군사외교적 추진방향도 통일한국시대를 대비한 보조 기능으로서 효율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이며 그럼으로써 통일한국군의 바람직한 군사체계 달성에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통일한국 이후 주변국과의 역학관계 설정에서 가장 큰 변수가 될 수 있는 한미동맹관계 및 주한미군 역할 변경에 관해서도 심도 깊은 검토와 대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표 14〉 통일한국군 군사체계 모델: 설문결과 종합

군사체계 구성요소		내 용	
군사전략 개념		공세적 방어전략	
군사력	적정 병력규모	30만~55만 정도 ☞ 30-35만(28.7%) ; 40-45만(22%); 50-55만(20%)	
	국경방어군 우선 배치지역	중국 육지국경 > 일본 해안국경 > 중국 해안국경 > 러시아 육지국경 > 러시아 해안국경	
군구조	지휘체계	통합군제	
	상비전력 : 예비전력 구성비	1 : 5 수준	
	3군(육:해:공군) 구성비	60% : 15% : 25%	
무기체계	핵심 무기체계 보유 우선순위	공중조기경보기 > 핵무기 > 대륙간 탄도미사일 > 이지스함 > 생화학무기 > 항공모함 > 장거리폭격기 > 무인정찰기	
	각군 역점 무기체계	육군	미사일>헬기>전차>야포>장갑차
		해군	잠수함>구축함>항공모함>상륙함정
		공군	조기경보기>전투기>전폭기>공중급유기
	전략 무기체계 능력	핵무기 보유	핵무기 제조능력 정도만 보유
미사일 능력		사거리 2천Km	